



## 진안군청신협,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전달

진안군청신협(이사장 양철승)은 8일 진안 부군수실에서 취약계층 27가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리며 이불을 전달 했다.

이 날 행사에는 진안군청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 10여명이 참여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지난 10월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진안군청신협 양철승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햇살을 비추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소방서, 덕유산리조트 리프트사고 인명구조훈련

무주소방서는 지난 2일과 3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리프트사고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덕유산리조트 설천베이스 에코리프트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리조트 리프트사고를 대비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매년 실시 중인 이 훈련은 무주소방서와 덕유산리조트 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롤러식, 장대식을 이용한 인명구조 △응급상황대비 구급대원 대응능력 향상 △로프를 이용한 수평·수직 구조방법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소방서, 정신요양시설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지난 7일에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 스마일빌 이용자·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남원소방서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상황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가 끼울 수 있음을 척안해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심정지 발생 시 의식 확인 법 △다매체 활용한 신속한 119 신고 △도움 요청의 중요성 △정확한 기습 암반법·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시설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 개최

## 우수 프로그램·종사자 활동 수기 대상 시상 등 진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이하 전북지원단)은 지난 7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3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14개 시군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성과포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우수 프로그램과 종사자 활동 수기에 대한 시상을 통해 우수 사례의 지역 확산을 모색했다.

또한 복권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의 아동 창작물 대회 및 우수 사례 성과공유회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참여 작품에 대한 전시 등이 함께 이뤄졌다.

8일 전북지원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도내 28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과 종사자 수기를 공모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우수사례 프로그램 부문에서 정읍시 김해영 열린지역아동센터장과 장수군 김영순 법암지역아동센터장이 최우수상을, 익산시 제일 지역아동센터 이현희 생활복지사가 수기 부문 최우수



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번 성과포럼에 공모된 모든 사례는 추후 '지역아동센터 우수사례집'으로 발간, 배포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수 프로그램과 순기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신애 단장은 "이번 성과포럼을 위해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 준 지역아동센터와 그간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의 안정적 활동에 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성과포럼을 통해 모이진 여리 우수 사례가 지역아동센터의 지속기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 샘골농협, 부녀회장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정읍 샘골농협은 지난 7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샘골농협 부녀회장 100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선 최근 유행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 수법과 사례를 전파하고 전화로 검찰·경찰, 금감원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고장으로 휴대폰이 점지되었다는 문자와 돈 송금을 요구할 경우 100% 사기이며 절대 응하지 말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샘골농협 박문순 상임이사는 "농협의 주고객인 농촌 어르신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순창 동계파출소, 농업인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순창경찰서(서장 권미자) 동계파출소는 8일 오전 순창군 적성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적성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상대로 신용보증재단 김유진 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농업인들 상대로 금융기관 고액현금인출 등 최신 보이스피싱 기법 및 금융사기 문자 발송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허위정책지원금 안내 문자메세지를 이용 생활안전자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선정 농업인들을 유혹 사전자금입금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예방 등 이와 관련 PPT 및 홍보영상미디어 등으로 교육하여 효과에 만전을 기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 문화교실 참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졸업사진 촬영

진안군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6월부터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한 문화교실 '그리고, 맹글고 떠드니 좋네~' 수업의 미무리를 앞두고 졸업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 인프라가 읍내에 집중되어 있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활용해 문화교실을 운영했다.

문화교실에는 배우지 못한 여현을 풀기 위해 모인 70대에서 88세까지의 어르신 10명이 참가해 백운면에 귀농 귀촌한 선생님들로부터 긴 세월 동안 경험했던 회로애락을 글로 써내는 작업을 배웠다.

7일 백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졸업 사진 촬영식에서는 소녀시절로 돌아간 듯 하하 호호 웃음이 이어지는 유쾌한 축제로 진행됐다. 촬영 중간중간 어린 시절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던 일들이 되살아 나 눈시울을 붉힐지도 한 10명의 소녀들은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한편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나 너무 아쉽다"며 "문화교실에 참여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실, 바둑 교실 등을 운영하며 관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주매일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신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차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간·옆면 4간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어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간·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몇마루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럽고 있어 한국 정원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